



FRIEZE SEOUL

2-5 September 2026

Booth A15

PKM GALLERY

Presenting artists

Yoo Youngkuk

Yun Hyong-keun

CHUNG, Hyun

Jungjin Lee

Wonwoo Lee

Koo Jeong A

Olafur Eliasson

PKM GALLERY



Yoo Youngkuk

Work

1996

Oil on canvas

97 × 130 cm



Yoo Youngkuk
Work

1996

Oil on canvas

97 × 130 cm

PKM GALLERY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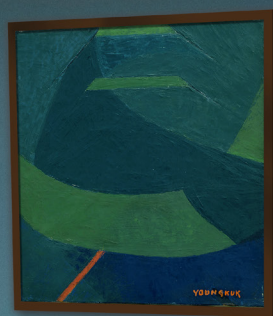
Yoo Youngkuk

Untitled

1974

Oil on canvas

31.5 × 31.5 cm



Yoo Youngkuk
Untitled

1974

Oil on canvas

31.5 × 31.5 cm

PKM GALLERY



유영국은 한국 추상미술의 개척자로, 자연의 본질을 기하학적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환원하며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했다. *Work* (1977)은 산과 대지의 형태를 간결한 색면과 기하학적 구성으로 표현한 소품으로, 유영국 특유의 추상 언어와 조형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. 최근 서울시립미술관(SeMA)의 한국 근현대 거장 시리즈의 첫 전시인 《유영국: 산은 내 안에 있다》가 개최되어,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조명한 회고전으로 주목받았다.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Umber-Blue

1981

Oil on linen

91.5 × 116 cm



Yun Hyong-keun
Umber-Blue

1981
Oil on linen
91.5 × 116 cm

PKM 갤러리는 8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,
단색화의 대가 윤형근 1928-2007 화백의 개인전
«윤형근을 다시 상상하다 reimagine Yun Hyong-keun»를
갤러리 전관에서 개최한다.

이번 전시는 윤 화백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작업 중
엄선된 대표작들을 선보이는 회고전 성격으로,
서로 다른 시기의 작품들을 서로 교차하며 중첩되는
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서 윤형근의 예술 세계를
입체적으로 조명한다.

"예술은 삶의 흔적일 뿐이며, 진실된 삶의 자세가 그림보다 중요하다."
— 윤형근

Yun Hyong-keun
Umber-Blue

1984

Oil on linen

51.3 × 76.3 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Umber-Blue

1984

Oil on linen

51.3 × 76.3 cm



Yun Hyong-keun
Umber-Blue
1984
Oil on linen
51.3 × 76.3 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Umber-Blue

1988

Oil on linen

33.3 × 106 cm



Yun Hyong-keu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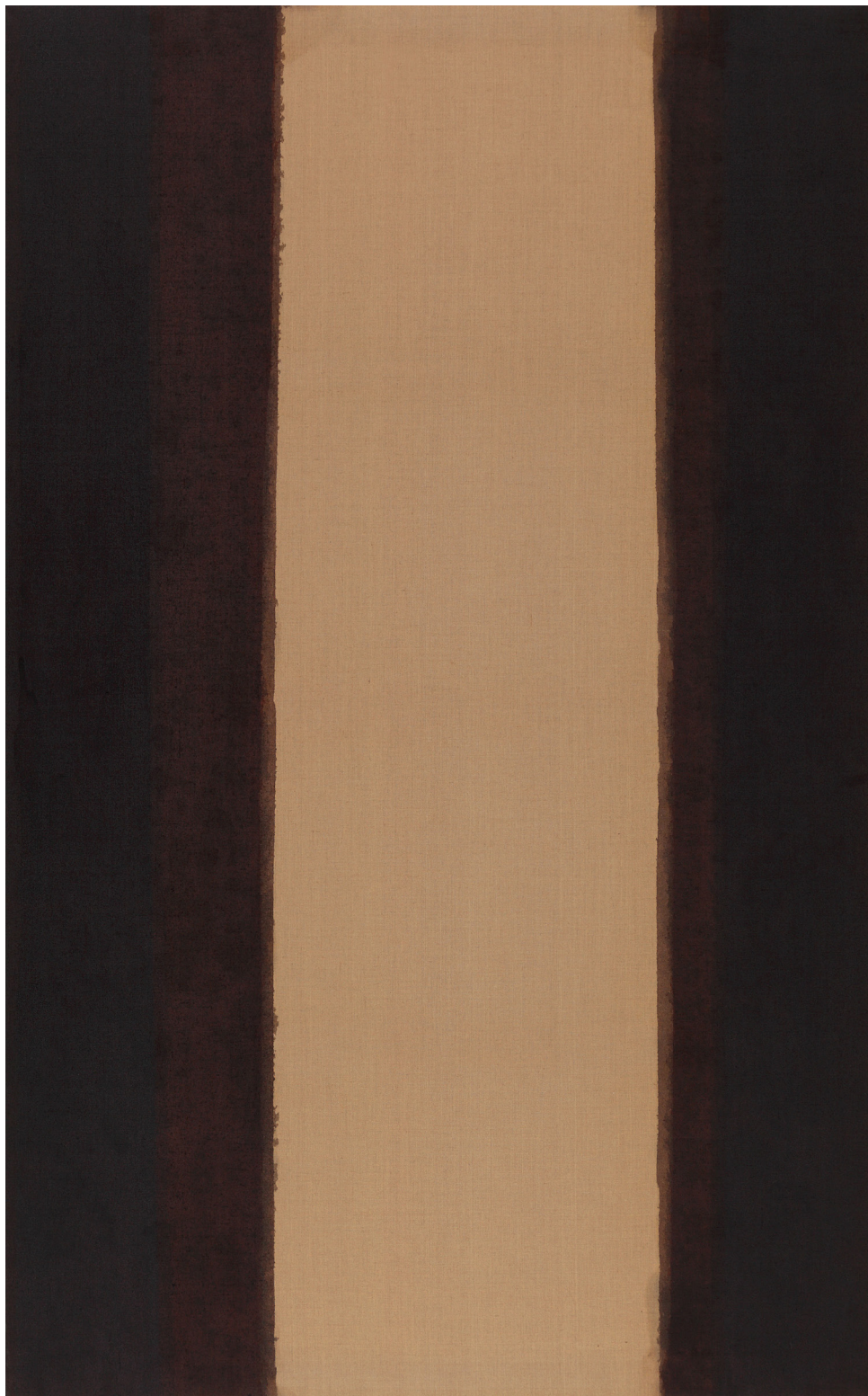
Umber-Blue

1988

Oil on linen

33.3 × 106 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Umber-Blue

1985

Oil on linen

259 × 162 c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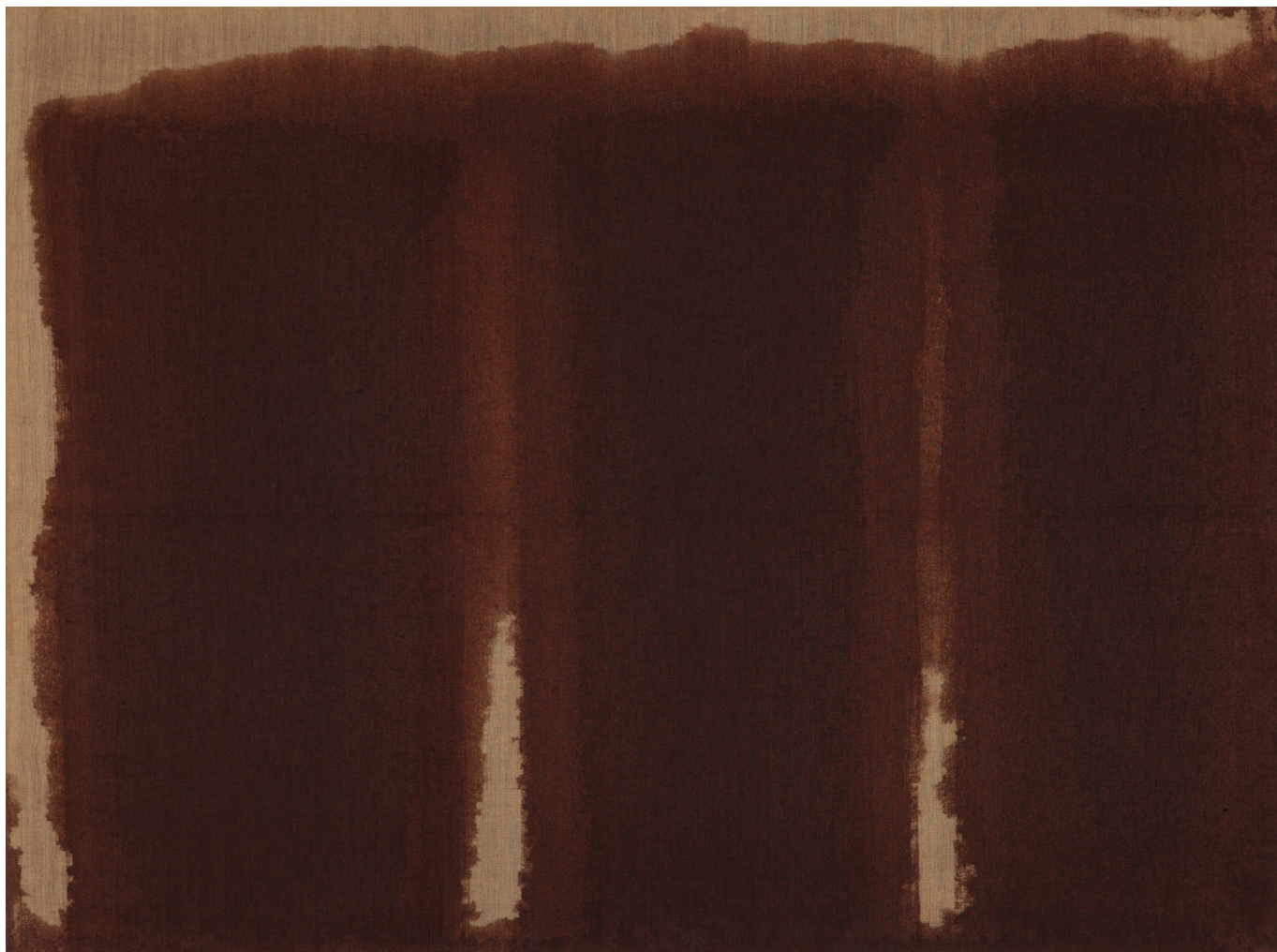
Yun Hyong-keun
Umber-Blue

1985

Oil on linen

259 × 162 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Umber-Blue

1987

Oil on linen

97 × 130.5 cm



Yun Hyong-keu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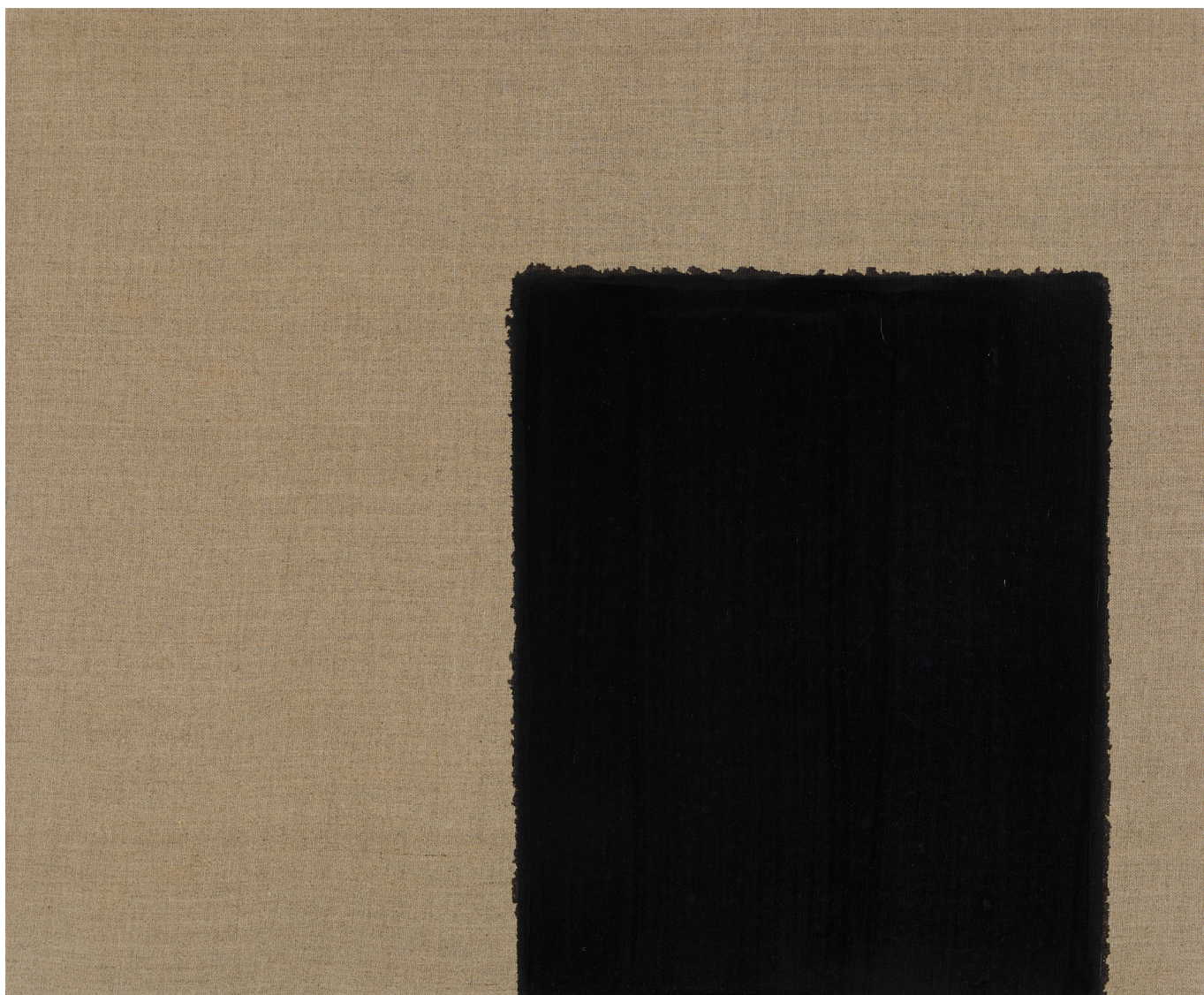
Umber-Blue

1987

Oil on linen

97 × 130.5 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Untitled

1995

Oil on linen

50.3 × 60.8 cm



Yun Hyong-keun

Untitled

1995

Oil on linen

50.3 × 60.8 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Burnt Umber & Ultramari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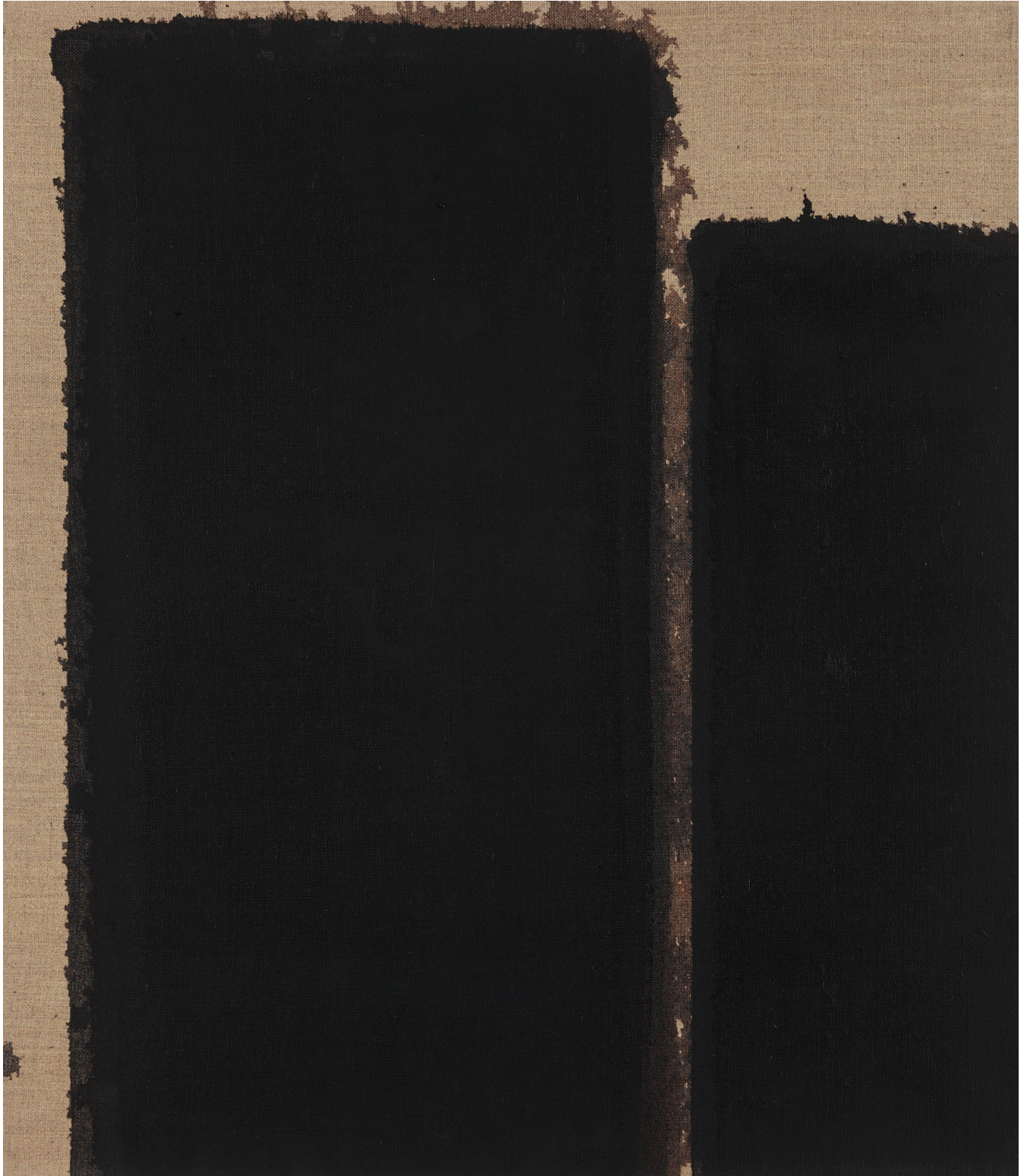
1984-89
Oil on linen
125 × 199.7 cm



Yun Hyong-keun
Burnt Umber & Ultramarine

1984-89
Oil on linen
125 × 199.7 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Burnt Umber & Ultramarine

1993

Oil on linen

53 × 45.5cm



Yun Hyong-keun
Burnt Umber & Ultramarine
1993
Oil on linen
53 × 45.5cm

PKM GALLERY



Yun Hyong-keun

Blue-Umber '76

1976

Oil on cotton

100 × 80.4 cm



Yun Hyong-keun
Blue-Umber '76

1976

Oil on cotton
100 × 80.4 cm

PKM GALLERY



아울러 윤 화백이 타계할 때까지 20여 년간 일상과 작업을 이어온 터전인
《윤형근의 집 Yun Hyong-keun House》이 개관한다. 윤형근은 동생 윤도근의
설계를 바탕으로, 공간의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적극적으로
반영해 서교동 주택을 완성했다. 1983년 완공 이후 최근 유족의 뜻에
따라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원되었으며, 윤 화백이 사용했던 가구와
생활용품을 생전의 배치대로 재현해 당시의 모습을 되살렸다. 2026년
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며, 2027년 봄
재개관을 앞두고 있다.

PKM GALLERY



CHUNG, Hyun

Untitled, 1991

Ed. 6/12

Paint on bronze

38.5 × 26 × 32 cm

CHUNG, Hyun

Untitled, 1991

Ed. 6/12

Paint on bronze

38.5 × 26 × 32 cm



PKM GALLERY



정현의 작업은 '인간'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한다. 1990년 대 초 그는 삽과 각목 등을 도구로 활용해 흙의 물성과 작가의 감각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는 *Untitled*(1991)과 같은 독창적인 브론즈 인물 조각을 선보였다. 이후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점차 다양한 사물과 물질로 확장되었으며, 침묵, 철근, 숯 등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재료를 통해 물질의 고유한 속성과 그 안에 축적된 시간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발전했다.

PKM GALLERY



Jungjin Lee

Unseen #51, 2024

Archival pigment print

109 × 152 cm

Ed. 1/3+3AP



Jungjin Lee

Unseen #51, 2024

Archival pigment print

109 × 152 cm

Ed. 1/3+3AP

PKM GALLERY



이정진은 대상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목시의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해 왔다. *Unseen #51* 은 연작의 형태로 아이슬란드의 경외로운 자연을 담은 작업이다. 작가에게 있어 아이슬란드는 시간이 멈춘 듯 적막한 미대륙 사막과는 달리, 매 순간 변화하는 날씨와 역동적인 공기, 거친 파도를 가진 생동하는 장소였다.

이 시리즈는 작년 『더 가디언』The Guardian, 『FT 매거진』FT Weekend Magazine 등 주요 외신으로부터 “우리 내면의 모든 울림을 담아낸 풍경”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.

PKM GALLERY



Wonwoo Lee

HONEY I'M HOME, 2026

Ed. 2/10

Stainless steel super mirror, steel, paint, silkscreen

48 × 36 c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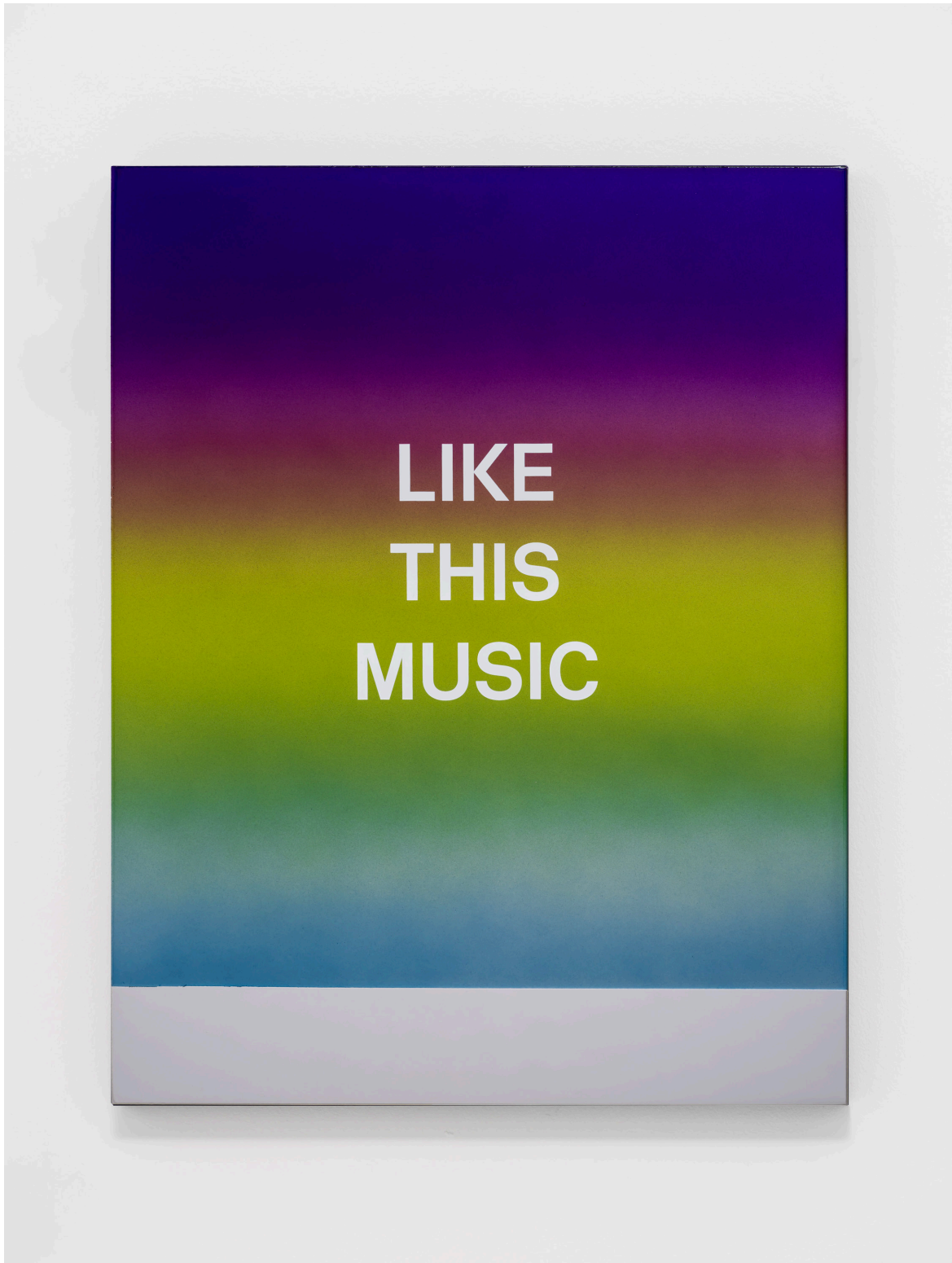
Wonwoo Lee
HONEY I'M HOME, 2026

Ed. 2/10

Stainless steel super mirror, steel, paint, silkscreen

48 × 36 cm

PKM GALLERY



Wonwoo Lee

LIKE THIS MUSIC, 2026

Ed. 2/10

Stainless steel super mirror, steel, paint, silkscreen

48 × 36 cm

PKM GALLERY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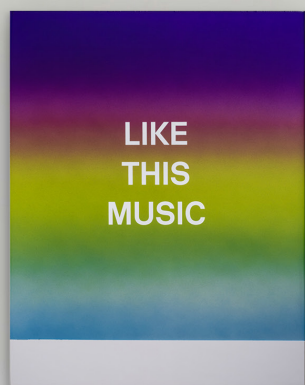
Wonwoo Lee

FOREVER YOUNG, 2026

Ed. 1/10

Stainless steel super mirror, steel, paint, silkscreen

48 × 36 cm



Wonwoo Lee
LIKE THIS MUSIC, 2026

Ed. 2/10

Stainless steel super mirror, steel, paint, silkscreen
48 × 36 cm

Wonwoo Lee
FOREVER YOUNG, 2026

Ed. 1/10

Stainless steel super mirror, steel, paint, silkscreen
48 × 36 cm

PKM GALLERY



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이원우 작가는 대표 연작 <Air words> 세 점을 선보인다.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언어, 기억, 시간에 대한 관심이 집약된 작업이다. 납작한 평면 위에는 시적인 문구가 부유하듯 배치된다. 작가는 글자를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닌, 공간을 구성하고 감각을 환기하는 조형 요소로 활용한다.

PKM GALLERY



Olafur Eliasson

*The surprising yet predictable phenomena
of matter taking matter into its own hands*

2026

Silvered coloured glass, laminated coloured glass,
composite board, aluminium

130 × 146 × 3.5 cm

PKM GALLERY



올라퍼 엘리아슨은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렌즈 플레어로부터 비롯된 기하학적 형태와 다채로운 색상의 수제 유리를 조합한 유리 벽 작업을 선보인다. 작가는 2018년부터 렌즈 플레어의 조형적 가능성을 탐구해왔으며, 사진과 영화에서 흔히 피하는 이 현상을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지닌 시각적 요소로 바라본다.

역동적인 유리 판의 구성은 렌즈 플레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패턴, 즉 카메라 렌즈를 태양과 같은 강한 광원을 향했을 때 나타나는 고리, 원, 다각형, 타원 형태의 빛에서 비롯되었다.

The surprising yet predictable phenomena of matter taking matter into its own hands, installation view, 2026

PKM GALLERY



Koo Jeong A
SpSt Y, 2024

Ed. 2/3+1AP

Bronze, galvanic gold-plating

54 × 47.4 × 21.7cm



Koo Jeong A
SpSt Y, 2024

Ed. 2/3+1AP

Bronze, galvanic gold-plating

54 × 47.4 × 21.7cm

PKM GALLERY



여러 장소를 오가며 활동하는 구정아는 쉽게 부서지거나 사라지는 일상의 장면과 사물에 주목하며, 그 안에 깃든 평범함의 시적 가능성을 일깨우는 작업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. 시, 소설, 설치, 조각, 회화, 무빙 이미지, 음향, 건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그의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은 현실과 비현실,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넘나든다. 2026년 9월 5일부터 구정아 작가의 전시가 리움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